

## 루터성서 출판과 개정의 역사\*

최 경 은\*\*

### [초 록]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성에 피신해 있을 동안 평상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신약성서를 단 11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그 후 비텐베르크로 돌아간 뒤 동료들과 번역 팀을 구성해 구약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신약이 나온 후 12년이 흐른 뒤인 1534년 드디어 루터성서 전서가 출판된다. 루터성서는 이전에 인쇄된 독일어성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페이지의 1단 구성, 총 117점에 이르는 삽화의 예술적 완성도, 타이포그래피, 두문자 등 그 당시 출판문화의 정점을 찍고 있다. 특히 루터성서는 판매와 유통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루터성서가 이런 아우라를 지닌 작품이었던 관계로 개정의 역사는 험난했다. 루터성서는 1545년 루터가 직접 참여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2010-361-A00018).

\*\*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어: 루터성서, 출판문화, 개정, 번역, 루터 고유의 표현

Luther Bible, Publication Culture, Revision, Translation, the Unique Voice of Luther

한 개정판이 나온 이래 무려 372년간에 걸쳐 공식적으로 인정된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그 사이 수많은 루터성서 수정본이 출간되었지만, 그 어떤 성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거의 400년 전의 언어형태가 문제였다. 독일어 정서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법적 변화도 적지 않았고, 특히 어휘에서의 변화는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간과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또한 쿨란 발견으로 대표되는 고대의 성서 사본이 계속 등장하고 성서 텍스트의 비평이 필수적 사항이 되자 텍스트 내용 그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그래서 루터성서는 1892년 개정판이 나온 이래 2016년까지 모두 4번의 개정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개정 작업의 목표는 루터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명백한 오류를 찾아 교정하고, 루터 고유의 표현은 되도록 살리며, 학문적으로 정확하고 동시에 언어적으로도 현대독일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출판된 최종 개정판은 특히 루터 고유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데 방점을 두었다.

## 1. 들어가며

2017년은 루터가 성교회의 대문에 95개 조항의 질의서를 붙인지 500년이 되는 해이다. 전세계 개신교 신자들은 이 해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종교개혁은 종교사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어의 역사에서도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다. 루터의 질의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그가 보름스 제국의회(1521)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강요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루터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자 군주 프리드리히 현공은 그를 급기야 위장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성으로 피신시키기에 이른다. 용커 외르크라는 이름으로 숨어살던 루터는 오랫동안 생각만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 즉 성서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이것이 독일어 역사의 이정표인 루터성서의

탄생 배경이다. 1522년 단 11주만에 신약을 번역한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와 구약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성서 번역을 시작한 지 12년이 흐른 1534년에 마침내 완역성서를 출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계속 성서의 교정 작업에 착수하여 1545년 죽기 한 해 전까지 루터성서의 개정판을 계속 출간한다. 이 과정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독일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독일어 형성에 절대적 좌표로 기능한다.

루터성서는 루터가 사망한 후 개정 작업을 300년 이상 미루게 된다. 개정을 하지 않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어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1892년 공식적으로 개정판을 내놓게 되며, 2016년에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주 사업으로 5판을 출판하기에 이른다.

이 글은 1522년 신약이 번역 출판된 이래 2016년 루터성서의 5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개정 출판된 루터성서의 출판과 개정 과정을 추적한다. 루터성서 텍스트가 지니는 신학적 의미는 여기지 다루지 않는다. 루터성서의 출판과 개정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루터성서의 언어적인 외형 변화, 예컨대 텍스트 수정과 더불어 타이포그래피, 삽화, 레이아웃 등의 변화 과정도 이 글의 주요 주제에 속한다.

## 2. ‘9월성서’에서 완역성서 출간과 교정까지(1522~1546)

1538년 탁상담화에서 루터는 자신이 언제 처음으로 성서를 읽었는지 기술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어느 누구도 성서를 읽지 않았다. 성서는 모든 이에  
게 알려지지 않았다. [...] 나는 도서관에서 성서를 발견했고, 수도원

에 들어가자마자 성서를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다.”(Beutel 2010, 258 재인용)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성인이 되어 비로소 성서를 처음으로 접했고, 곧 성서에 몰입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루터에게 성서를 번역해 보라고 제안한 이는 멜란히톤(Philipp Melancthon, 1497-1560)이었다. 루터가 1521년 12월 18일에 요하네스 랑에게 보낸 편지와 루터의 『탁상담화』에 나오는 진술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성서가 지금 보다 우수한 독일어로 번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완결되고 통일적인 형태로 인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르트부르크에 피신해 있는 기간이 성서를 번역하기에는 최적기였지만, 구약부터 시작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대한 언어적 조연자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어로는 어려움이 훨씬 덜했기에 신약을 우선 번역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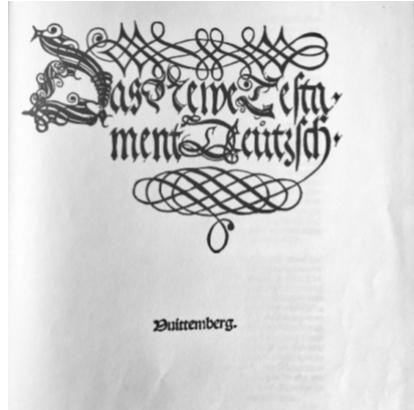
정확히 어떤 원본이 사용되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라틴어번역과 주해가 있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였을 것이다. 그 당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서는 슈트라스부르크 출신의 인문주의자인 니콜라우스 게르벨에 의해 재인쇄되었는데, 루터는 이 인쇄본을 5월에 인편으로 받아 볼 수 있었다.<sup>2)</sup> 라틴어성서인 불가타가 없었다는 사실은 루터에게 불행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성서학 교수였던 루터는 불가타를 광범위하게 암기할 수 있었다.

루터의 번역 의도는 ‘신약성서 머리말’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머리말은 1522년 1판에 이미 첨부되어 있다. 성서에서 잘못 읽힐 수 있는 신의 명령과 계율이 문제가 되는데, 신의 복음과 약속만이 ‘하나’의 복음과 ‘하나’의 믿음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석들이 존재

1) Luther, Martin: *Tischreden*. Hrsg. v. K. Aland. Stuttgart 2017, S. 9f.

2) 루터는 1521년 5월 4일에 바르트부르크로 위장 납치되었다.

하고 그중에는 잘못된 해석도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해석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런 해석들은 ‘순수한’ 신의 말씀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이것으로 루터의 번역 의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철저히 역설적이다. 루터의 머리말에 따르면, 신약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확고한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약과 구약이 ‘그리스도의 설교’를 함께 묘사하



[그림 1] '9월성서'의 표지.

고 있다. 그리고 루터는 “복음은 원래 우리가 경건하고 성스러워지는 우리의 공적, 정말이지 그런 빌어먹을 공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 우리에게 죄, 죽음, 지옥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역설하고 있다.

루터는 신약을 단 11주 만에 번역한다. 루터가 예전에 의지했던 라이프치히 인쇄업자의 아들인 멜키오르 로터 주니어가 마침 비텐베르크에서 1520년에 발표된 루터의 종교개혁 서한들을 인쇄하기 위해 일종의 인쇄소 지점을 열었다. 그러나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성서번역을 위해서는 그의 인쇄 능력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로터는 다른 인쇄소와 연합하여 성서를 인쇄하기로 했고, 선제후의 궁정화가였던 루카스 크라나흐의 공방과 연합하였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화가 크라나흐는 부유한 금세공사 크리스티안 되링과 함께 2인 출판사를 설립하였다. 1522년 9월에 출판되었기에 ‘9월성서’라 불리는 신약 인쇄의 경우 비록 인쇄업자의 이름도 번역자의 이름도 표지에 언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독일어 신약. 비텐베르크’라는 소박한 제목이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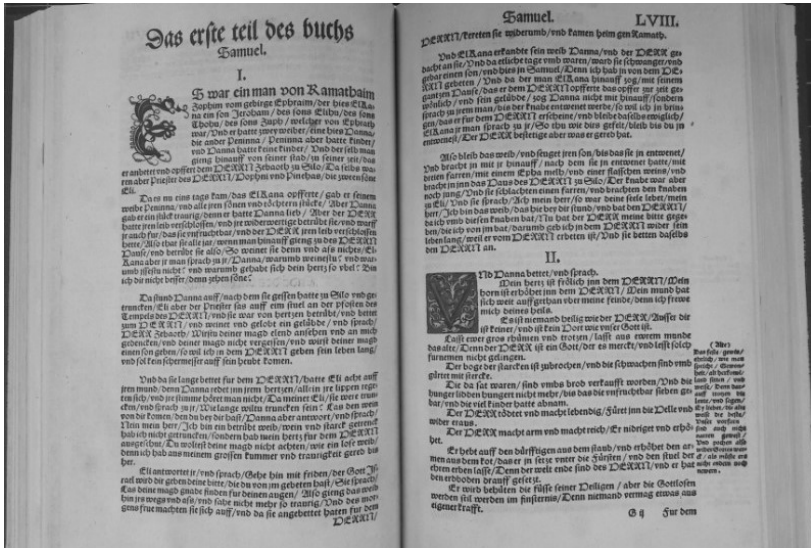
그 당시 ‘9월성서’ 출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9월성서’의 외형은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아주 깔끔하게 인쇄되었다. 루터는 좋은 인쇄활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멋진 바스타다 글꼴, 즉 꺾인 글꼴로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후 50년 이상에 걸쳐 발전된 글꼴이었다. 구텐베르크 자신은 고딕글꼴에 더 가까운 텍스투라 글꼴로 인쇄하였다. 라이프치히 내지는 비텐베르크 바스타다 글꼴은 텍스투라 글꼴보다 조금 더 넓고, 두툼하지만 가독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났다. 라틴어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둥근 안티크바 글꼴로 인쇄되고,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이런 안티크바 글꼴을 선호한 반면, 루터는 ‘독일 글꼴’인 바스타다 글꼴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독일어성서가 안티크바를 사용했던 라틴어성서 불가타와는 완전히 다름을 은연중에 제시하려 했다.

물론 바스타다 글꼴에 머문 것은 아니다. 성서전서의 인쇄는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락투어 글꼴로 인쇄되는데, 이것은 바스타다 글꼴의 발전 형태 혹은 완성형으로 볼 수 있다. 프락투어는 막시밀리안 1세의 궁정에서 사용된 글꼴로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에 의해 개발되고 사용되었다. 프락투어 글꼴은 바스타다보다 좀 더 날씬한 글꼴로서, 종이 비용의 10분의 1을 절약할 수 있었다.

루터 자신도 “라틴 글꼴(안티크바)이 대중에게 독일어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sup>3)</sup>에 꺾인 글꼴(프락투어)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1560년 독일의 출판업자인 파이어아벤트(Sigmund Feyerabend, 1528-1590)에 의해 인쇄 보급된 루터성서<sup>4)</sup>는 프락투어로 인쇄되었다. 루터성서의 글꼴로서 프락투어의 사용은 루터 종교개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평민’(gemeines Volk)의 읽기 능력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3) Wehde, Susanne: *Typographische Kultur*. Tübingen 2000, S.219에서 재인용.

4) 1534년 비텐베르크의 인쇄업자 한스 루프트(Hans Luft)에 의해 인쇄된 최초의 루터 성서에는 슈바바허가 사용되었다.



[그림 2] 루터성서(1534)의 레이아웃.

다. 어린 시절에 프락투어로 인쇄된 루터의 교리 문답서를 읽고, 커서는 프락투어로 인쇄된 루터성서로 학습하는 학교에 다녔고, 마찬가지로 프락투어로 인쇄된 찬송가집을 지니며 매주 교회에 다닌 사람은 텍스트의 글꼴은 당연히 프락투어라는 등식을 가지게 되었다. 루터성서의 글꼴인 프락투어는 이와 같이 300여 년 이상 독일민중에게 ‘고향의 글꼴’, ‘독일의 글꼴’, ‘프로테스탄트의 글꼴’이 되었다.<sup>5)</sup>

루터는 2절판 크기에서 단 구분이 없이 텍스트를 담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성서의 인쇄에 텍스트는 2단으로 나누어졌다. 단으로 나

5) 1545년에 인쇄된 루터성서의 맺는말에는 “자비, 위안, 천사 등과 같은 단어들 이 등장하거나, 긍정적인 것을 진술하는 문장인 경우 첫 글자가 슈바바허로 인쇄되었고, 그에 반해 부정적인 진술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분노, 형벌, 죽음, 악마 등과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첫 글자가 안티크바로 인쇄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글꼴에 대한 독일인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루터성서의 글꼴에 대해서 최경은(201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누지 않은 이유는 양 여백에 해당 부분의 주해를 기입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4에 ‘Heuschrecken’(메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해가 있다. “메뚜기는 히에로니무스가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몇몇 나라에서는 식용으로 사육되기도 한다.” 로마서에서는 여백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할레’에 대한 정보로 채워져 있다. 행 바꿈을 위한 들여쓰기와 문장 끝남 뒤의 빈 행으로 깔끔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나온다. 장(章)은 큰 두문자로 시작되고 손으로 직접 추가로 채색될 수 있었다. 책의 시작 부분은 거기서 더 나아가 상당히 큰 장식문자로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막시밀리안 황제의 궁정에서 사용된 모양, 예컨대 『토이어당크』(Teuerdank)에서 사용되었던 글씨와 유사하다(그림 2] 참조).

루터는 처음부터 성서에 삽화를 요구했다. 성서에 삽화를 넣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중세의 독일어성서는 인쇄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삽화를 담고 있다. 1478/79년에 출판된 저지독일어 쾰른성서는 123점의 큰 목판화를 담고 있는데, 각 목판화의 크기는 반페이지를 채울 정도였다. 루터는 이전에 인쇄된 18종에 이르는 독일어성서와는 달리, 삽화를 성서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1522년 ‘9월성서’의 삽화는 루카스 크라나흐에 의해 제작되었지만, 1534년 10월에 출간된 루터성서의 삽화는 1532년에서 1534년까지 이니셜이 MS인 화가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것은 루터성서에 들어있는 총 117점의 삽화 중 몇몇 삽화에서 숫자 ‘1532’(30, 87, 91), ‘1533’(84), ‘1534’(46, 60), 그리고 ‘MS’(30, 36, 40, 88, 91)<sup>6)</sup>라는 문자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유추될 수 있다. MS라는 이니셜을 사용하는 삽화가는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sup>7)</sup> 삽화의 제작에는 최소한 2년이 소요되었으며, 그 당시의 가치로 엄청난 금액인

6) 괄호 안의 숫자는 루터성서에 들어있는 117점 삽화의 순서를 의미한다.

7) Melchior Schwarzenberg와 울름 출신의 Martin Schaffner가 MS라는 주장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Schmidt 1962, 17).

500굴덴<sup>8)</sup>이 들었다. 루터의 이전 번역에 대한 실린 대부분의 삽화들은 시간이 촉박한 상태<sup>9)</sup>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원역성서의 삽화가 예술적으로나 스타일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했다. 윤곽선은 채색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선명했으며, 전체적으로 삽화의 예술적 질이 상당히 고별 그림의 모음집보다 더 예술작품에 가깝다. 이 삽화들이 종교개혁기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에 속한다”(Monighan-Schäfer 2005, 155)는 주장이 그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삽화가 들어간 책 가운데 예술 기법의 확산에 가장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 경우도 성서였으며<sup>10)</sup>, 그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루터성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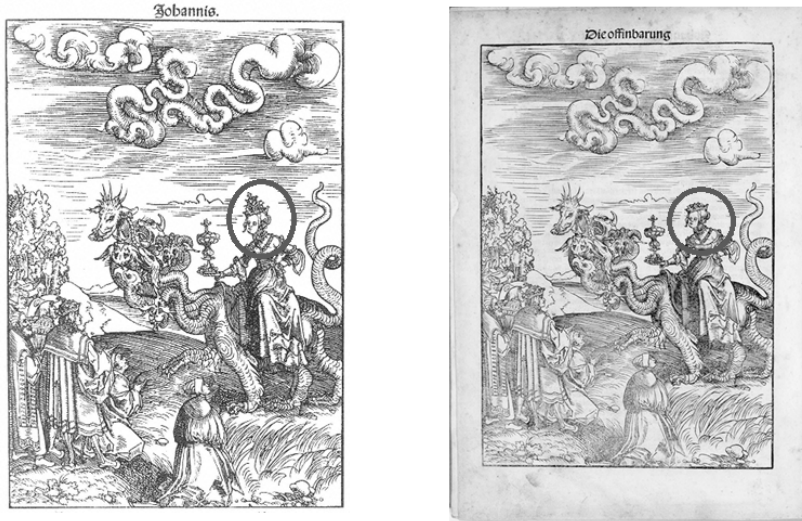
루터성서의 삽화와 이전에 인쇄된 독일어성서의 삽화가 다른 점은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진다. 이 삽화들은 뒤러의 유명한 목판화를 모방하여 그렸는데, 교황 내지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반대하는 논쟁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였다. ‘9월성서’에는 용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교황을 상징하는 삼중관을 쓰고 있거나, 세속적인 성직자가 손에 성서가 아니라 면벌부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런 그림을 통한 공격으로 베티너 가문의 에르네스틴계가 아닌 알베르틴계의 작센 게오르크 대공은 루터성서의 인쇄와 판매를 금지시켰다. 어쨌든 루터는 자신의 군주 프리드리히 현공의 부탁으로 몇 달 후 인쇄된 ‘12월성서’에서 바빌론 창녀의 머리 위에 그려진 삼중관을 1단 왕관으로 바꾸었다([그림 3]).<sup>11)</sup>

8) 1굴덴은 그 당시 교사의 2달치 급료 혹은 송아지 1마리 가격에 해당한다, 뤼셀(2014), 151쪽 참조.

9) 예컨대 ‘9월성서’의 삽화는 제작기간이 아주 짧았다. 루카스 크라나흐(1472-1553)는 1522년 늦봄에 5개월이란 짧은 기간 내에 루터의 신약번역에 넣을 요한계시록 삽화를 주문받았는데, 라이프치히에서 10월 4일에서 11일까지 열리는 가을매세에 맞추어 인쇄물을 시장에 내놓으려 했기 때문이었다(Martin 1983, 176 참조).

10) 페브르/마르탱(2014, 172쪽) 참조.

11) 루터성서의 삽화에 대해서는 최경은(2014)에서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그림 3] 9월성서와 12월성서의 삽화.

신약의 번역 작업은 멜란히톤을 비롯한 소수의 친구들만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선제후도 이 사실을 알았고, 새로 조판된 인쇄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었다. 라이프치히 서적 박람회(9월 29일~10월 6일)에 맞추기 위해 두 개의 인쇄기가 동원되었으며, 삽화가 많이 들어간 요한계시록을 인쇄할 때인 7월 말경부터는 3개의 인쇄기가 돌아갔다. 머리말 부분의 페이지 표시가 들어가지 않은 몇몇 장이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었다. 9월 21일 전에 목표가 달성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정확히 몇 부가 인쇄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최소 3천부에서 최대 5천부까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그 부수는 그 당시 가능한 인쇄부수의 최대치였다.

가격은 제본되지 않은 상태로는 0.5굴덴, 제본된 상태는 1굴덴, 채색된 경우는 1.5굴덴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옛날의 인쇄물 가격에 비하면 상

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는 100굴덴 정도에 거래되었으며, 필사로 제작된 성서는 그 다섯 배 정도의 가치였다(뮌셀 2014, 27쪽 이하 참조).

‘9월성서’의 성공은 비텐베르크 외부에서 인쇄된 부수로 입증되었다. 즉, ‘9월성서’는 1522년 출간된 해에 이미 바젤에서 다시 인쇄되었다. 1523년에는 비텐베르크에서 2번, 바젤에서 8번, 취리히에서 3번 인쇄되었고 아우크스부르크, 그리마, 라이프치히에서도 인쇄되었다(Göttert 2017, 286).

‘9월성서’는 3개월 만에 모두 팔렸다. 그런 판매 상황은 예측되었고 즉시 두 번째 판이 준비되었다. 이 판은 12월에 인쇄되었기에 ‘12월성서’라 부른다. 그런 다음 루터는 구약번역을 위한 거대한 걸음을 시작하였다. 구약번역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엄청난 분량으로 단계적으로만 가능하였다. 또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비용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 어떤 어려움이 제기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루터는 종교개혁에 대한 논쟁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던 스위스인들과도 논쟁을 하고 있었다.<sup>12)</sup>

그 외에도 인쇄업자들과의 문제도 있었다. 1523년 멜키오르 로터의 동생인 하인리히 로터가 비텐베르크로 왔다. 폭력을 동원한 싸움을 벌인 후 그는 크라나흐 공방을 비워줘야 했고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원에 정착했다. 그는 막테부르크에서 인쇄업을 계속해 나가기까지 비텐베르크에서 1528년까지 신약과 번역을 마친 구약의 일부를 인쇄했다. 그러나 성서의 대부분은 비텐베르크에서 1523년 크라나흐-되링의 인쇄기로 새로 설립되었고 1525년까지 성서를 출판했던 2인 출판업자에 의해 주로 인쇄되었다. 그 후 한 번 더 전환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1523년 인쇄업자 한스 루프트(Hans Lufft, 1495~1584)의 등장이었다. 그는 루터가 죽을 때까지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성서를 인쇄하였다. 따라서 루터성서는 하

12) 츠빙글리의 주도 하에 번역된 ‘취리히성서’(Zürcher Bibel)는 1531년에 이미 출간되었다.



[그림 4] 루터성서(1534)의 표지.

인리히 로터와 멜키오르 로터에 의해 시작되었고, 크라나흐-되링을 거쳐 루프트에 의해 인쇄되었다. 루프트는 1528년 이후에는 루터성서의 인쇄를 독점하였고 5배까지 생산량을 늘렸다.

1523년 중엽 우선 구약의 제1권 ‘모세5경’이 완성되었는데, ‘독일어 구약’(Das Alte Testament deutsch)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고 같은 해 이미 2판이 나왔다. 1524년에는 제2권으로 ‘역사서’, 제3권으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가 출판되었다. 구약은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고, 다음 해엔 성서의 중요한 책이

날권으로 각각 인쇄되었다. 1525년에는 ‘시편’, 1526년에서 1528년까지 소(小)예언서, 1528년에 첫 대(大)예언서인 ‘이사야’, 그 후엔 ‘솔로몬의 지혜서’, ‘다니엘서’, 끝으로 마지막 예언서들이 인쇄되었다. 후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오는 외경인 ‘예수 지라크’, ‘마카비서’가 각각 1533년에 출판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완역성서가 나오게 되는데, 1534년 2권으로 인쇄되었다. ‘성서, 독일어 완역성서’(Biblia das ist, Die gantze Heilige Schrift Deudsch)라는 제목으로 출판되는데, 저자와 장소 정보와 함께 인쇄업자 한스 루프트(Hans Lufft)도 표기되어 있다([그림 4]). 그동안 신약은 85번에 걸쳐 인쇄되었으며 완역성서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계속 인쇄되었다.

루프트는 매년 완역성서 첫 출간일에 동료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다. 성서의 판매로 루프트는 부유해졌고 지점도 열었다. 그는 비텐베르크에

서 명망을 얻어 시민권도 획득했으며, 시의회에서 높은 직책도 맡았다. 이런 사실은 현재 비텐베르크의 시교회에 보존되어 있는 루카스 크라나흐 주니어의 제단화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제단화.

물론 루터성서의 출판에 투자한 자들도 점점 부유해졌다. 출판업자 바르톨로모이스 포겔, 크리스토프 슈람, 모리츠 골츠는 1533년 선제후가 부여하는 인쇄 우선권을 파산한 되링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십 년 동안 책사업과 특히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되는 성서를 독점 판매했다. 서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은 꾸준히 시장에 임명되었다. 여기서 성서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비텐베르크에서의 인쇄나 판매가 아니라, 그동안 국제적인 판로에 따른 판매와 특히 3명의 출판업자들이 사업을 활발히 했던 메세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13)</sup> 루터성서는 통에 담긴 채 전 지역으로 판매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는 출판업자가 직접 운영했던 ‘등근 천장서점’ (Büchergewölbe)에서 루터성서가 판매되었다.

루터성서의 텍스트에는 1529년 이래 중요한 절, 즉 ‘핵심 위치’ (Kernstelle)가 표시되는데, 1541년 이래 이런 ‘핵심 위치’는 루터의 희망에 따라 추가로 제작했던 프락투어로 인쇄되었다. 예컨대 루터 추종자라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로마서 1장 17절<sup>14)</sup> 혹은 3장 28절<sup>15)</sup>이

13) 종교개혁기 비텐베르크의 출판에 대해서는 최경은(2017)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1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5)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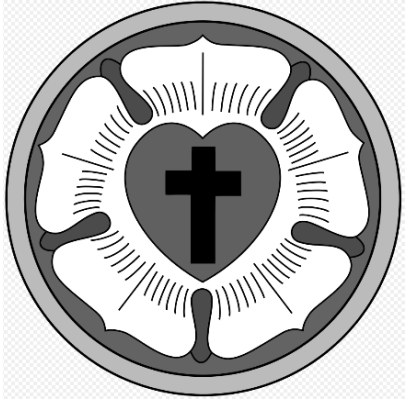
대표적인 ‘핵심 위치’이다. ‘핵심 위치’는 1539년 200군데 이상, 1541년 825군데, 1543년 1999군데로 상승했으며, 1545년 725군데, 1546년에는 272군데로 감소했다(Hövelmann 1989). 오늘날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각 루터성서의 제작년도가 인식될 수 있다.

1539년과 1541년 사이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텍스트가 자세히 검증되었고, 몇몇 고어화된 형태가 단계적으로 삭제되었다. 처음으로 옛 전통에 따라 2단으로 인쇄되었던 1540년판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가 인쇄된 반면, 개정된 텍스트는 1541년 출간된 소위 중간 크기(일반적 크기인 13,6 × 24,3 cm 대신에 16,7 × 28 cm)로 나왔으며 양질의 종이와 장식이 추가되었다. 부유한 구매자는 전체를 양피지로 인쇄하고, 루터의 서명을 넣어주도록 주문하기도 했는데, 루터는 거기에 기꺼이 응했다.

루터가 살아있을 동안 완역성서는 총 11번 인쇄되었고, 마지막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작은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되었다. 루프트는 대략 50년에 걸쳐 약 10만부 정도의 루터성서를 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1522년, 즉 신약이 처음 출간된 해에 이미 바젤의 아담 페트리에 의해 최초의 루터성서 복제물이 나왔는데, 특별한 장식, 제목의 틀, 복음서 작가 그림, 한스 홀바인 주니어의 도안에 따른 두문자 등이 추가되었다. 복제물은 그 양에 있어 비텐베르크에서 인쇄된 오리지널 인쇄본을 월등하게 추월했는데, 그 비율이 1 : 5 정도로 추정된다. 루터는 복제물에 반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바젤과 뉘른베르크와 같은 남부독일의 상업도시에서 자신의 성서가 인쇄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에 유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류나 인쇄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루터는 불법 복제물 제작에 반대하였다. 그는 1524년부터 ‘루터 장미’([그림 6])를 자신이 직접 인쇄

에 관여했다는 표시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저질의 불법 복제물을 경고했다. “이것[루터 장미]은 이 책들이 내 손을 통해 나왔다는 목격자인데, 왜냐하면 작금에 이르러 잘못된 인쇄와 서적 손상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반복적 경고의 표시도 저작권 보호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번역자의 서한』에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적고



[그림 6] 루터 장미.

있다. “내 모든 친구와 적, 장인, 인쇄업자, 독자에게 부탁을 드린다. 그들은 이 신약을 내가 번역한 것으로 하길 원하지만, 그들 자신이 번역한 것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형편없이 제작된 성서가 ‘루터의 독일어성서’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sup>16)</sup>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항상 루터성서의 머리말에 반복해서 등장하곤 했다.

1546년까지 오리지널과 복제물을 통틀어 430번에 걸쳐 루터성서의 전서 혹은 일부가 인쇄되었다. 대략 50만부의 루터성서가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약 1,200만에서 1,500만이 거주했던 독일어권에서 유통되었던 수치이다(Besch 2014, 57).

16) Luther, Martin: *Sendbrief vom Dolmetschen*. Hrsg. v. E. Kähler. Stuttgart 2012, S. 142.

## 2. 루터 사후(死後)에서 공식적인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1546~1892)

1546년 2월 18일 오래 동안 중병을 앓았던 루터는 아이스레벤에서 비텐베르크로 오는 여행 중에 사망하였다. 그가 영향을 미쳤던 성서의 마지막 인쇄본은 그가 사망하기 전해에 출간되었다. 이제 루터성서의 출판은 전적으로 외부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루터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게오르크 뢰러(Georg Rörer, 1492~1557)가 루터성서의 출판 임무를 넘겨 받았다. 그 후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비텐베르크는 슈말칼덴 전쟁(1546~1547)의 결과 카를 5세의 수중에 떨어지고 선제후 지위는 작센의 알베르트 가문으로 넘어갔다. 뢰러가 덴마크로 도망친 상태였기 때문에 예전의 부(副)교정자인 크리스토프 발터(Christoph Walter)가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성서의 출판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 시기에 뢰러는 예나로 가서 그곳에서 1555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한 루터 선집을 준비하였다. 발터는 루터성서의 인쇄에 사용되었던 활자의 보존에 이르기까지 루터 유산의 수호자였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칼빈(Johannes Calvin, 1507-1564)의 영향으로 루터성서도 변화하게 되는데, 비텐베르크에서 특히 멜란히톤과 그의 제자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칼빈에 대해 호감을 지녔었다. ‘루터 신봉자 중 칼빈주의 동조자’(Kryptocalvinismus)에 대한 비난이 싹뚧고, 예나의 정통 루터교와 비텐베르크는 곧 분열되었다. 1564년 소위 예나의 ‘투쟁성서’(Kampfbibel)가 출간되었는데, 이 성서는 비텐베르크의 칼빈 동조자에 대항하여 활자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비텐베르크에서 칼빈주의자 내지는 칼빈주의 동조자들의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572년 크라프트(Johann Krafft, ?~1578)는 루프트와 더불어 루터성서의 인쇄권을 인수하였고, 그럼으로써 정통 루

티교로 돌아갔다. 또한 작센의 선제후 아우구스트는 혼란에 직면해 ‘표준성서’(Normalbibel)의 출판을 명령했고, 그 제작을 위해 1545년판 루터의 저자 보존용 성서를 가져오게 했다. 이 성서는 1581년 출간되었고, 이미 1545년판과 더 이상 일치하진 않았다. 여기서 ‘올바른’ 종교개혁 신앙의 증거물로서 ‘올바른’ 성서를 위한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 작센의 재상 니콜라우스 크렐 박사(Nikolaus Krell, 1550-1601)가 종교개혁 신앙고백을 표명하고 처형당했다. 그러나 루터주의의 신봉자였던 작센 선제후의 부인 조피 폰 브란텐부르크가 크렐의 종교개혁 사상을 결국 관철시켰다. 그녀는 구약에 나오는 유디트<sup>17)</sup>처럼 믿었고, 그녀의 추종자들에 의해 ‘작센의 유디트’로 추앙받았다. 칼빈주의 혹은 종교개혁을 추종하는 가문은 수시로 습격이나 약탈을 당했으며, 1572년 파리에서 일어났던 ‘바르톨로모이스의 밤’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성서를 위한 투쟁은 종파 간 화해할 수 없는 전선을 구축했고, 점점 많은 수로 인쇄되었던 루터성서 그 자체가 가톨릭에 대항하는 투쟁의 동력이 되었다.

비텐베르크는 예나와 더불어 1626년까지 루터성서 인쇄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비텐베르크는 ‘30년 전쟁’(1618~1648)으로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으며 1760년에는 ‘7년 전쟁’(1756~1763)으로 거의 모든 시설물들이 파괴되었다. 1817년 비텐베르크대학은 예나대학과 합병하게 된다. 101종의 완역성서가 비텐베르크 전성기에 제작되었고, 불법 복제물도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복제에 대한 경고도 함께 인쇄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는 1560년부터 루터성서가 순수 상업적 근거로 제작되었고, ‘30년 전쟁’ 중 비텐베르크에서는 이동하는 군인들을 위해 조그만 판형의 루터성서가 인쇄되기도 했다. 17세기 정통 루터교 전성기 동안에는 루터성서가 뉘른베르크에서만 3종, 뤼네부르크에서 6종,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1522년에서 1546년 사이에 43종의 완역 루터성서와

17) 유디트는 미인계의 전형으로 위험을 내포하나 요염함, 혹은 나라 위해 몸 바치는 애국심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림 7] 루터성서(1545).

성서의 일부가 인쇄되었다.

루터가 사망했을 때 루터성서의 ‘판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루터성서를 정서법적으로 교정하거나, 당시 사용하는 언어에 맞게 수정하고 지역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을 바꾸어 루터성서를 출판하는 일도 가능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반해 루터성서의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존하려는 시도도 많이 존재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1581년 중부독일어권에서 출판된 ‘표준성서’(1581), 예나에서 작업하여 뉘른베르크에서 인쇄된 ‘선제후성서’, 북부독일어권

에서 출판된 ‘슈타더성서’(1690) 등이 있다. 이와 같이 16~17세기에는 항상 새로운 루터성서가 출간되었다. 이런 종류의 루터성서는 모두 1545년 판 루터성서를 원본으로 사용했다. 1545년판은 루터가 직접 교정에 참여했던 마지막 성서로서 가장 권위 있는 루터성서였다([그림 7]).

루터성서 출판에서 획기적인 사건은 칸슈타인(Carl Hildebrand von Canstein, 1667~1719) 남작이 고아원 서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값싼’ 성서의 출현이었다. 칸슈타인은 소위 ‘고정 조판’(Stehsatz)을 이용한 인쇄를 창안해냈다. ‘고정 조판’은 인쇄가 이루어진 후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재차 반복 인쇄하는 조판이었다. 그 결과 성서의 제작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었다. 칸슈타인은 1545년의 루터성서를 구매하였고 적당히 교정한 후 ‘고정 조판’을 만들어 대량으로 반복 인쇄하였다. 1775년 성서 머리말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준다. “1백만 부 이상의 완역 성서, 그리고 70만부의 신약성서가 독일의 모든 지역과 독일어가 사용되

는 다른 나라에까지 배포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연구소에서 제작되었다. 1백년 이상 지난 뒤인 1883년에는 칸슈타인성서와 성서 부분인쇄는 5백 8십만 부를 넘어섰다(Grimm 1874, 21). 괴테나 실러와 같은 고전주의 작가들이 이 성서로부터 자신의 독일어를 익혔다는 사실도 이 데이터로 충분히 유추될 수 있다.

정통 루터교와의 불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와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와 같이 루터성서를 교정하여 출판한 이들은 루터성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정에 나선다는 언급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러나 친첸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1700~1760)는 특히 그의 헤른후트파<sup>18)</sup> 공동체를 위해 1727년 루터성서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오류라고 생각한 부분을 과감하게 교정하였다. 그는 1739년 벵엘(Johann Albrecht Bengel, 1687~1752)의 그리스어 텍스트를 원본으로 하여 자신의 번역을 제시했고, 이것으로 그는 독일에서 본문 비평의 창시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정통 루터교의 저항은 거세었다. 친첸도르프 성서의 초판은 몰수당했고, 그가 사망 후에 ‘루터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한 텍스트에 따라’ 제작되었다는 문구를 넣은 후에 비로소 출간되었다.

루터성서가 19세기 말까지 개정되지 않고 계속 원본을 유지하며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취리히성서와 비교한 베쉬의 연구 결과(Besch 2014, 65 쪽 이하)를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1524년에 루터의 신약 번역은 여러 번에 걸쳐 취리히에서 인쇄되었고,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서 츠빙글리의 감독 하에 다시 번역되고, 루터의 완역성서가 나오기 전인 1531년에 이미 완역성서인 취리히성서가 인쇄되었다. 취리히성서는 이미 루터의 번역 일부가 제시된 곳에서 약간의 어휘들을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상부독일어에 따라 약간 변화시켜” 인쇄되었음을 머리말에

18) 친첸도르프가 창립한 경건주의 종교 단체.

루터성서	1522	1545	1569	1626	1694	1736	1797			1892		1912	1984
Ufer	U	U	U	U	U	U	U	U	U	U	U	U	U
quälen	q	q	q	q	q	q	q	q	q	q	q	q	q
schmücken	s	s	s	s	s	s	s	s	s	s	s	s	s
Küchlein	K	K	K	K	K	K	K	K	K	K	K	K	K/J
Scheffel	S	S	S	S	S	S	S	S	S	S	S	S	S
Motten	M	M	M	M	M	M	M	M	M	M	M	M	M
Heuchler	H	H	H	H	H	H	H	H	H	H	H	H	H
Lippen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Li
취리히성서	1531	1545		1638	1683	1745	1755	1772	1789	1817	1882	1931	1996
Gestade	G	G	G	G	G	G	G	G	G	G	G	G	U
peinigen	p	p	p	p	p	p	p	p	p	p	p	p	q
zieren	z	z	z	z	z	z	z	z	z	z	z	s	s
Jungen	J	J	J	J	J	J	J	J	J	J	K	K	K/J
Viertel	V	V	V	V	V	V	V	V	V	V	S	S	S
Schaben	S	S	S	S	S	S	S	S	S	S	M	M	M
Gleisner	G	G	G	G	G	G	G	H	G	G	H	H	H
Lefzen	Le	Le	Le	Le	Le	Le	Le	Li	Le	Li	Li	Li	Li

[그림 8] 루터성서와 취리히성서의 어휘 비교.

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1665-1667년, 즉 130년은 족히 지난 뒤에 이루어진 취리히성서 교정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지역에서 사용된 독일어의 문어체 요소들이 성서 텍스트에 많이 사용되었다가, 그 이후 이런 요소들이 차츰 없어지는데, 1772년판에는 “독일 전체에서 수용된 언어사용에 따라 [……] 수정되었다”(머리말). 베쉬는 루터성서와 취리히성서에서 유래된 8개의 어휘 쌍, Ufer/Gestade, quälen/peinigen, schmücken/zieren, Küchlein/Jungen, Scheffel/Viertel, Motten/Schaben, Heuchler/Gleisner, Lippen/Lefzen을 추적하여 대조 분석했다([그림 8] 참조).

루터성서와 취리히성서 어휘 대조표는 수백 년에 걸쳐 관찰된 루터성서의 놀라운 어휘 지속력을 보여준다. 유일한 예외는 1984년 Küchlein 대신에 Küken이었으며, 1996년 취리히성서도 이 어휘로 대체되었다. 또한 취리히성서에는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많은 토속 상부독일어 어휘

가 사용되었지만, 그 후 단계적으로 루터성서의 어휘로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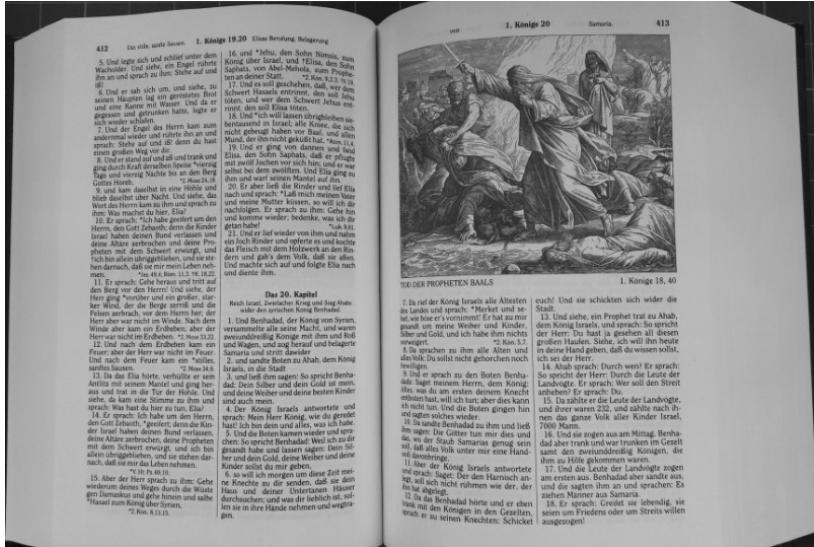
이 분석은 독일어의 방언이 루터성서를 중심으로 통일해 나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런 어휘 분야가 아닌 영역, 예컨대 정서법과 굴절형태소 등의 문제로 루터성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많았고, 결국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루터성서는 고어를 설명해주는 단어 색인을 첨부하는 것으로 절충하게 된다. 18세기 저명한 문법학자 아이힝어(Aichinger)는 루터성서의 새로운 번역이나 개정이 필요 없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성서의 새로운 번역이 시도되고 있는데, 개신교에서 이런 번역판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이 유일무이한 성서 외에는 어떤 이유도 제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어떤 새로운 번역이 누구에 의해 번역되던 간에 교회에서 루터의 번역이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신망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774, 29).<sup>19)</sup>

### 3. 루터성서의 개정(1892~2017)

루터성서는 루터가 생존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조용한 상태로 그대로 있진 않았다. 그러나 19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개정판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863년 10명의 개신교 신학자가 공식적으로 루터의 신약성서 개정에 대해 논했고, 1867년 교정 작업에 착수하여 1879년 결과물을 내놓았다. 1883년부터 완역성서의 교정 작업도 시작되었으며 1892년 최종적인 개정판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판이 루터

19) Besch (2014, 77)에서 재인용.



[그림 9] 루터성서(1912).

교회가 인정한 최초의 루터성서 개정판이었다.

그 다음 공식적 개정판은 1912년에 출간되며 그 이전의 개정판과 같이 거의 어휘 분야만이 수정되었다. 표지에는 ‘루터장미’가 그려져 있고, 제목은 ‘성서 형식은 구약과 신약 전서, 율리우스 슈노르 폰 카를스펠트의 223점의 목판화가 삽입된 마르틴 루터 박사의 독일어번역’이다. 삽화가 현대적 감각으로 바꾸어 들어갔으며, 프라투어가 아닌 안티크바 글꼴로 인쇄되었고, 성서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인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9) 참조).

루터성서의 개정은 1928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원어로 기록된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계몽주의와 성서 비평학이 확고히 자리를 잡은 이래 기준이 되는 텍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대성서의 모든 교정은 연구 결과로 나온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38년 ‘견본 성서’(Protestament)로 나오고 계속 진행되었

던 다음 개정 작업은 나치시대와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45년 루터교, 통합교(*unierte Kirche*), 개혁교(*reformierte Kirche*) 등이 연합한 독일개신교회협회(*Evangelische Kirche Deutschland*)가 창립되고 난 이후 교정 작업은 계속되었다. 1955년 실험 인쇄본이 나왔고, 1956년 신약이 나왔지만 격렬한 비판에 부딪혀 곧 바로 보완작업을 시작하였고 1964년 구약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원 자료 검색 작업을 소홀히 한 관계로 이 경우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언어 관점에서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했다.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독어학자인 프리치 치르흐는 1966년 루터성서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Tschirch 1966). 논문에서 그는 개정 작업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새로운 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상세히 밝혔는데, 물론 이런 조치가 또 다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치르흐는 지금까지의 루터성서가 ‘소심함’(Zaghafitigkeit)으로 인해 ‘박물관에나 전시되는 성서’(Museumsstück)로 남았고, 여백 주석에는 교정자를 ‘무장해제 시키는 무지’로 덮여있다고 역설한다. 이런 비난은 어휘, 문장 구조, 문법 형태소, 비강세 음절의 탈락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분석되고 비판되었다. 예컨대 어휘 분야에선 언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동일한 어휘도 16세기와 현재의 의미가 다르다. ‘schlecht’(나쁜)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 괴테시대에까지도 ‘schlicht’(단순한)의 의미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문장구조에서도 루터성서는 계속 중세의 문장구조가 전승되어 많은 부분에 걸쳐 그대로 기록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보기와 같은 문장은 명확한 접속사를 사용해야 텍스트의 종속 관계가 분명해진다는 주장이었다(보기: *Und wer nicht trägt sein Kreuz und folgt mir nach. → Und wer nicht sein Kreuz trägt und mir nachfolgt*).

1956/64년 신약과 구약 교정 과정에서 많은 잡동사니들이 제거되었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독일어로 텍스트에 보다 많은 언어적 교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1975년 또 한 번 새롭게 교정되었는데, 이

변에는 언어적 매끄러움을 위한 시도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루터 특유의 언어가 현대독일어에 어느 정도까지 묵인될 수 있는가 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의견이 여전히 분분했다. 보기를 들어보자.

Man zündet auch nicht ein Licht an und setzt es unter einen Scheffel,  
(루터성서, 마태 5,15)

Neither do men light a candle, and put it under a bushel (킹제임스성서)

이 부분은 한글 성서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 하고”라 번역되어 있다. 루터성서와 킹제임스성서와 비교해 보면 번역에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다. 여기서 ‘Scheffel’은 곡물계량단위이며 지방에 따라 50~180리터 정도를 표현하는 단위인데, 여기서 는 그 정도 분량을 담을 수 있는 포대자루를 의미한다. ‘Scheffel’은 현대에 통용되지 않아 잘 모르니 이 단어 대신에 ‘Eimer’(양동이)를 쓴 성서도 있는데, 이런 성서를 ‘양동이성서’(Eimertestament)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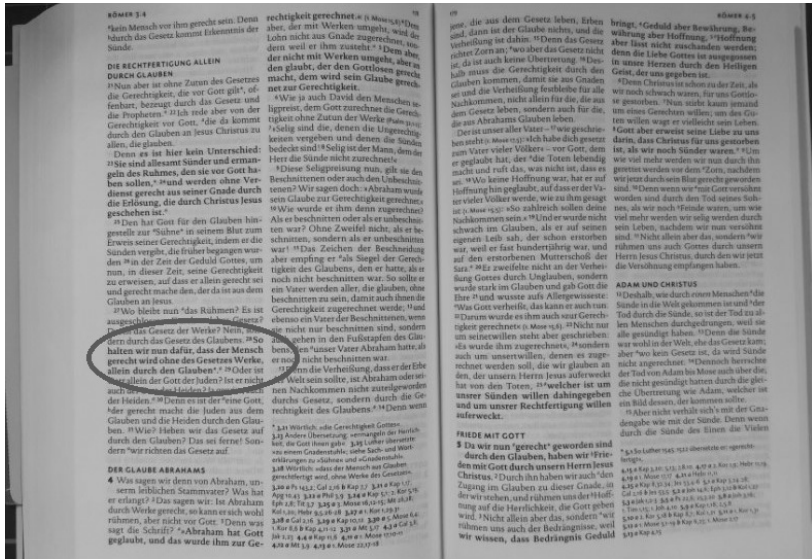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할 경우 딜레마에 빠진다. 실제로 루터성서와 현대의 교정 요구에 충실한 성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루터성서의 교정을 통해 새로운 길이 개척될 수 있는가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원본과 그에 상응하는 주석을 지닌 루터성서의 비판본이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루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번역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성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번역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성서인가?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교정 없는 루터성서를 언어적이며 문화적인 대작으로 끊임없이 제공해야 하는가? 결국 많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루터와 성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루터성서의 개정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을 위한 폭풍이 지나간 뒤 개신교는 예배와 같은 의례용으로 사용될 ‘통일성서’(Einheitsbibel) 제작 사업에 참여했다. ‘통일성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가 끝난 뒤 가톨릭교회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다. 예배를 위해 두 종파 모두 동의하는 ‘통일성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은 이미 1970년에 좌초되었고, 8년 뒤 ‘통일성서’는 순수 가톨릭 사업으로 출간되었다. 좌절의 원인으로 가톨릭 번역자들이 불가타에 방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라틴어 ‘ecclesia’에 상응하는 ‘교회’(Kirche)라는 개념의 사용 대신에 개신교 측에서는 ‘공동체’(Gemeinde)를 주장했다.

두 종파의 통일 번역 프로젝트가 좌절된 후 독일개신교위원회는 계속해서 루터성서의 교정 콘셉트를 따라갔다. 교정은 1977년 시작되었고, 1984년 종결되었다. 그리고 1999년 현대의 맞춤법 통일안에 맞추어 교정되어 2016년까지 사용되었다. 현대적으로 교정된 선구적 개정판에 비해 루터텍스트는 어릴 적부터 암기했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그대로 두었다. 교정은 어려운 부분,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1975년 연합교회 개정판에 없어졌던 루터식 이름 표기법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예컨대 Nazaret에서 다시 Nazareth로, Rut이 다시 Ruth, Ijob이 다시 Hiob으로 표기되었다. 교정은 대부분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은, 예컨대 ‘Weib’(여편네)를 ‘Frau’(부인)로 교정한 것과 같이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신구약 연구자와 독어학자로 구성된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성되어 교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70이란 숫자는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서’(Septuaginta)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2015년 교정 작업은 예컨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루터가 대중의 입을 주시한다’<sup>20)</sup>와 같은 재미있는 제목으로 언론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다.

2016년에 그 전해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즉 거의 52만부의 인쇄된



[그림 10] 루터성서(2017).

성서가 판매되었다고 슈투트가르트 성서협회가 보고했다. 높은 판매실적의 공신은 개정판 ‘루터성서 2017’이다. 루터성서는 2016년 10월 19일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연말까지 이미 30만 7천부가 예약 판매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서의 판매량도 2015년 18만 7천부에서 2016년에는 24만부로 늘었다고 한다.<sup>20)</sup>

루터성서 2017년판은 ‘마르틴 루터의 번역에 따른 성서. 루터성서 2017년 개정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판. 종교개혁가와 성서 번역자로서 마르틴 루터의 영향에 대한 부록 첨부’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984년판과 같이 책 표지에는 ‘루터장미’가 로고로 나오고 삽화도 없다. 재미있는 것은 소위 루터성서의 ‘핵심 위치’를 진한 표기로 인쇄하여 옛

- 20) ‘대중의 입을 주시하는’ 것은 루터가 표방한 가장 중요한 번역원칙이다.
- 21) <https://www.luther2017.de/kr/neuigkeiten/lutherbibel-2017-ist-ein-verkaufserfolg/>.

날 판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그림 10] 참조).

그렇다면 ‘루터성서 2017’은 기존의 1984년판과 무엇이 새로운가를 간단히 살펴보자. 텍스트의 변화는 정확성, 가독성, 루터 특수어의 부활, 현대 독일어 경향의 반영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랐다.

#### 1) 정확성

출발 텍스트에 대한 신뢰가 개정의 중심 사항이다. 현대성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본을 근거로 번역된다. 예컨대 20세기에 발견된 쿵란<sup>22)</sup>은 성서 텍스트 연구의 인식을 상당히 진척시켰다. 과거, 특히 루터시대보다 오늘날의 텍스트 전송이 훨씬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다.

#### Lutherbibel 1984

Und siehe, da erhob sich eingewaltiger Sturm auf dem See, (호수에 강력한 태풍이 일었다)

sodass auch das Boot von Wellen zugedeckt wurde.

Er aber schlief.

#### Lutherbibel 2017

Und siehe, da war ein großes Beben im Meer, (바다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다)

sodass das Boot von den Wellen bedeckt wurde.

Er aber schlief

---

22) 예루살렘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1947년 양치기 소년이 부근에 있는 사막의 동굴에서 사해문서(성서의 필사본)를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기원전 8세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고, 기원전 2세기에는 유대교의 한 파인 에세네파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사해문서를 남겼다.

2) 가독성

언어는 꾸준히 발전하는 생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몇몇 개념의 의미가 변화되었거나 일반 어휘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1984년 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해되지 않는 개념들이 2017년 판에서는 조심스럽게 수정되었다.

Lutherbibel 1984

Da ihr aber die Geburt so schwer wurde, sprach die Wehmutter zu ihr: (고어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어휘)

Fürchte dich nicht, denn auch diesmal wirst du einen Sohn haben.

Lutherbibel 2017 Da ihr aber die Geburt so schwer wurde, sprach die Hebamme zu ihr: (산파)

Fürchte dich nicht, denn auch diesmal wirst du einen Sohn haben.

3) 루터 특수어의 부활

20세기에 루터성서를 현대화하려는 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이제 루터성서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복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2017년 개정판의 주요 목표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교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루터의 특수언어를 다시 재생시켰다.

Lutherbibel 1545-1912

WJe(Wie) der Hirsch schreiet nach frischem Wasser / so schreiet meine seele, Gott, zu dir

Lutherbibel 1984

Wie der Hirsch lechzt nach frischem Wasser, so schreit meine Seele,  
Gott, zu dir

Lutherbibel 2017

Wie der Hirsch schreit nach frischem Wasser, so schreit meine Seele,  
Gott, zu dir.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  
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시편 42,2)

Lutherbibel 1545

auf dass man erfahre beide von der Sonnen Aufgang und der Sonnen  
Niedergang, dass außer mir nichts sei. Ich bin der HERR, und keiner  
mehr,

Lutherbibel 1984

damit man erfahre in Ost und West, dass außer mir nichts ist. Ich bin  
der HERR, und sonst keiner mehr,

Lutherbibel 2017

damit man erfahre vom Aufgang der Sonne bis zu ihrem Niedergang,  
dass keiner ist außer mir. Ich bin der Herr, und sonst keiner mehr,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6)

Lutherbibel 1984

Ihr Schlangenbrut, wie könnt ihr (뱀의 한 배 새끼)

Gutes reden, die ihr böse seid? Wes das

Herz voll ist, des geht der Mund über.

Lutherbibel 2017

Ihr Ottengezücht, wie könnt ihr (독사의 한 배 새끼)

Gutes reden, die ihr böse seid? Wes das

Herz voll ist, des geht der Mund über.

4) 현대 독일어의 경향 반영

예를 들면 호칭에서 현대독일어의 형태에 맞게 개정되었다.

Lutherbibel 1984

Ich ermahne euch aber, liebe Brüder, im Namen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dass ihr alle mit einer Stimme redet;

Lutherbibel 2017

Ich ermahne euch aber, Brüder und Schwester, im Namen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dass ihr alle mit einer Stimme redet;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고린도전 1,10)

1984년 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정되었는지 통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약 31,000개의 절 중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12,000개의 절이 수정되었다. 외경의 경우 44,000개의 절 중 37,000개의 절이 수정되어 80%를 넘었다. 전체적으로 2017년 판은 거의 16,000개의 절(44%)이 지금까지의 판본과 다르다.

그러나 수정의 질은 아주 다른데, 예컨대 기호 사용의 변화와 같은 사소한 수정에서 개별 단어의 교체, 그리고 몇몇 절은 완전히 새롭게 번역하는 데까지 그 수정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정보는 1984년 판과 2017년

판 사이의 단어 목록의 비교를 통해 정확히 밝히고 있다. 수정된 절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단어의 10% 정도만이 수정되었고, 외경에서 많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수정 수치는 5%까지 떨어진다.<sup>23)</sup>

수정의 약 3분의 1 정도는 초기 개정판의 교정이다. 이 과정에서 1545년판으로 ‘복귀하는 개정’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루터의 언어에 권위를 줄 뿐만 아니라 종종 문헌학적으로도 최근 교정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절에 걸쳐 작거나 크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철저하게 검정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 나가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루터성서를 “독일어로 된 유려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루터성서가 이런 아우라를 지닌 작품이었던 관계로 개정의 역사는 험난했다.

루터성서는 1545년 루터가 직접 참여한 개정판이 나온 이래 무려 372년만에 걸쳐 공식적으로 인정된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그 사이 수많은 루터성서 수정본이 출간되었지만, 그 어떤 성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정을 가하는 대신에 기껏 단어 색인이나 주석을 통해 당대인들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 텍스트에 수정을 감행한 학자들도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종국엔 수정 출판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엔 ‘루터의 번역’이란 문구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거의 400년 전의 언어형태가 문제였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벌

23) 독일성서협회의 홈페이지(<https://www.die-bibel.de/ueber-unsunsere-uebersetzungen/lutherbibel-2017/wasistneu/aenderungen/>), 2017년 7월 18일 접속.

어졌다. 우선 독일어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독일어 정서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문법적 변화도 적지 않았고, 특히 어휘에서의 변화는 현대 독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간과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고 또한 쿤란 발견으로 대표되는 고대의 성서 사본이 계속 등장하고 성서 텍스트의 비평이 필수적 사항이 되자 텍스트 내용 그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그래서 루터성서는 1892년 개정판이 나온 이래 2016년까지 모두 4번의 개정판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개정 작업의 목표는 루터 텍스트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명백한 오류를 찾아 교정하고, 루터 고유의 표현은 되도록 살리며, 학문적으로 정확하고 동시에 언어적으로도 현대독일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출판된 최종 개정판은 특히 루터 고유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현대 독일어의 사용도 고려되었는데, 텍스트를 항상 연구의 현재적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번역원칙이기도 했다.

## 참고문헌

- 최경은(2017), 「종교개혁기의 비텐베르크 인쇄문화를 중심으로」, 『유럽사회문화』 18호, p. 37-61.
- \_\_\_\_\_ (2014), 「시대비판을 위한 매체로서 루터성서(1534) 삽화」, 『유럽사회문화』 13호, p. 55-82.
- \_\_\_\_\_ (2012): 「독일 타이포그래피의 역사. 안티크바 — 프락투어 논쟁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21권, p. 369-395.
- 페브르, 루시앵 · 앙리 장 마르탱(2014), 『책의 탄생』. 강주현 · 배영란 옮김. 돌베개.
- 픽셀, 슈테판(2014), 『구텐베르크와 그의 영향』. 최경은 옮김. 연세대학교 출판부.
- Besch, Werner (2014), *Luther und die deutsche Sprache*. Berlin.
- Blanke, H. (2010), “Bibelübersetzung”. In: A. Beutel(Hg.), *Luther Handbuch*. 2.Aufl. Tübingen, pp. 258-265.
- Göttert, Karl-Heinz (2017), *Luthers Bibel. Geschichte einer feindlichen Übernahme*. Frankfurt am Main.
- Grimm, W. (1874), “Die Lutherbibel und ihre Textrevision”, in: *Deutsche Zeit- und Streitfragen. Flugschriften zur Kenntnis der Gegenwart*. Hrsg. v. Fr. v. Holtzendorff/W. Onken, Jahrgang III, Berlin.
- Günther, Hartmut (2017), *Mit Feuereifer und Herzenslust. Wie Luther unsere Sprache prägte*. Berlin.
- Hövelmann, H. (1989), *Kernstellen der Lutherbibel*. Bielefeld.
- Lesch, Jürgen-Peter (2017), *Die Revision der Lutherbibel 2017. Ein Werkstattbericht*. (루터성서 2017년 개정 작업 팀장의 보고서: [http://katharinenbraunschweig.de/wp/wp-content/uploads/2017/09/Lutherbibel-2017\\_Ein- Werkstattbericht.pdf](http://katharinenbraunschweig.de/wp/wp-content/uploads/2017/09/Lutherbibel-2017_Ein-Werkstattbericht.pdf)).
- Luther, Martin (2017), *Tischreden*. Hrsg. v. K. Aland. Stuttgart.
- \_\_\_\_\_ (2012), *Sendbrief vom Dolmetschen*. Hrsg. v. E. Kähler. Stuttgart.
- Martin, Peter (1983), *Martin Luther und die Bilder zur Apokalypse*. Hamburg.
- Monighan-Schäfer, Johanna (2005), *Offenbarung 12 im Spiegel der Zeit. Eine*

*Untersuchung theologischer und künstlerischer Entwicklungen anhand der apokalyptischen Frau.* Diss. Marburg.

Schmidt, Ph. (1962), *Die Illustration der Lutherbibel 1522-1700.* Basel.

Tschirch, Fritz (1966), “Die Sprache der Bibelübersetzung Luthers heute”. In: Ders., *Spiegelungen.* Berlin.

Wehde, Susanne (2000), *Typographische Kultur.* Tübingen.

원고 접수일: 2017년 12월 15일

심사 완료일: 2018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월 31일

ABSTRACT

---

## The History of the Luther Bible's Publication and Revisions

Choi, Kyung-Eun\*

The German theologian Martin Luther dedicated himself, while being confined in Wartburg Castle, to translating the New Testament from Greek to German — something that he had been meaning to do for a long time — over a period of just 11 weeks. Upon returning to Wittenberg later on, he put together a team to translate the Old Testament. The complete works of Luther's bible was finally published in 1534 — 12 years after the New Testament came out. Luther's version was a marked departure from previous German bibles. It was indeed the culmination of the time's publishing culture with its single column structure per page, the total of 117 pieces of artful illustration, and new typography and first letter presentations. In particular, the bible was an unprecedented success in terms of sales and dissemination.

However, the aura of Luther's bible ironically served as a challenge in its later history of revision. After 1545, when the revised version that Luther took part in himself was published, it took a whopping 372 years for another official revision to take place. There were numerous mod-

---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Yonsei University

ifications in the meantime, but none were officially recognized.

The issue was the language from four centuries ago. The German orthography had been revamped on many occasions, the grammar had undergone changes, and in particular the vocabulary was a formidable challenge for modern readers. In addition, as ancient scripts (notably the discovery of the Qumran) kept surfacing, a critical reading of the text had become crucial; and there was now a need to look over the context of Luther's bible as well. This led to a total of four revisions to come forth as of 2016 since the first in 1892. The objective has been to enhance the readability and identify concrete errors; while preserving the unique voice of Luther to create a text that is accurate academically and linguistically modern. The final revision that was published to mark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has especially centered on featuring the originality of Luther.